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 주요 내용

최 원 선임연구원

- 미국·유럽발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8월 16일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환건전성 관리,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기업 자금지원, 증권시장 안정 기반 확충 등에 대해 논의함.
 - 간담회 참석자들은 흑자기조, 외환보유고, 외환건전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글로벌 신용 경색이 심화될 경우 외화 차입여건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외환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함.
 - 특히, 외화 차입선 다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중동자금 유치 등과 같이 대외여건 악화에 대비한 안전판 확충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은행권 BIS 비율이 14%에 이르는 등 금융권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2013년 Basel III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세계경기 부진으로 국내 경기의 위축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배당정책 운영 등을 통한 선제적인 완충여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기로 합의함.
 - 회장단은 현재 기업 자금사정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정부도 기업 자금경색 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기로 함.
 - 간담회 참석자들은 높은 외국인 투자 비중으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대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증권시장의 투자자 구조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봄.
 -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 등 증권시장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증권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금융권이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 8/16)